

F.OUND

PEOPLE & CONTEMPORARY LIFESTYLE

ISSUE
#45
05
MAY
2014

Cover Story

KIM, SUNGRYOUNG

People

TOKIMONSTA

UBARE

ZITTEN

KIM, SUNGEUN &

PARK, SOOJIN

RUN RIVER NORTH

Special Issue

FLEA MARKET

Fantastic CD Inside



www.foundmag.co.kr

ISSN 2093-6915

5000 Won

05



9 772093 691007

Damián Ortega_Reading Landscapes

조합, 그리고 해체

editor_서옥선 image_국제갤러리

멕시코에서 태어나 멕시코시티에서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다미안 오르테가(Damián Ortega)는 멕시코 현대 미술의 세대를 구성하는 주요 작가 중 한 명이다. 지난 4월 10일부터 약 한달간 국제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는 그의 개인전을 찾은 것은 독특한 형태와 텍스처의 설치 작품들에서 자극받은 호기심 때문이었다. 다른 모든 예술 작품들이 그렇지만, 설치 작품들에서 오는 '아-'의 순간을 만끽하고 싶었다.

실제로 마주한 그의 작품은 생각보다 복잡적이었고 복잡했다. 재료들을 새로운 방법으로 조합하고 해체하는 작가의 표현 방법은 우리가 사는 세계를 구축하는 힘에 대한 탐구에서 비롯된다. 다소 관념적인 이 설명은 갤러리에서 제일 먼저 마주한 작품 'Todas las fallas' 앞에서 쉽게 설명이 되었다. 큰 나무를 자르고 눕히고 다시 배열한 이 작품에서 나무는 자신의 나이테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인다. 작품 재료의 본질에서 느껴지는 아름다움과 나이테만큼 겹겹이 쌓인 지구의 이야기가 보이는 것 이상의 상상을 가능하게 한다. 3관에 설치된 '세계의 축'인 'Viaje al centro de la tierra: Penetrable'도 인상 깊다. 공중에 매달린 수많은 조각이 구성해낸 지구는 아름답기도 하고 신비롭기도 한데, 층층이 매달아낸 조각들의 중심에서 세계의 바깥쪽을 바라보는 흥미로운 체험도 가능하다. 이외에도 돌의 부드러운 곡선을 짜맞춘 'Extraccion 1'도 작가의 해체와 조합에 대한 생각을 읽을 수 있다.

사실 다미안 오르테가의 전시를 찾은 것은 'Esquema del mundo: Estratigrafias'를 비롯한 독특한 구형 작품들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기도 한데 불행히도 이들은 한국에서의 첫 번째 전시 때 내한하지 못했다. 균형과 조정이라는 작가의 태도를

가장 잘 표현한 작품 중 하나인 'Cosmic Thing' 역시 자료로만 접할 수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그럼에도 다미안 오르테가는 몇 개의 작품들만으로 관람자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다. 그의 작품은 단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말은 사실이었다. 무겁기도 하고 가볍기도 하며, 과학적이면서도 예술적이다. 개인적으로는 내가 살고 있는 지금의 세계, 그리고 인간의 존재에 대한 심오한 생각에 빠져들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 안에서 나는 어떤 조각으로 부유하고 있는 걸까? [E]

01 Viaje al centro de la tierra: Penetrable 지구 중심으로의 여행: 관통할 수 있는, Installation, Metallic Structure and Suspended Objects, Tubular Leather, Pumice Stone, Zamak, Baked Ceramic, Glass, Red Tezonite, Installed: (Approx) 300×300×400cm, 2014 02 Magnetostera 자기장, Paper, Paint and Glue, 50×32cm (Diameter, Each), 2014 03 Extraccion 1 채굴 1, Pigmented Concrete, 120×30×30cm, 2014 Image Provided by Kukje Gallery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